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96호 【국제 제 25239호】 주제 105 (2016)년 4월 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자!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기적창조로 영웅적위훈을!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승리만을 떨치는 맹렬한 공격정신으로 련이어 새 기준, 새 기록 창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용광로조업이래 하루 주체철 최고생산기록 또다시 돌파

주체철의 우월한 조성률이 승리의 영광의 5월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승전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1일과 10일, 11일에 주체철 생산계획을 각각 190%, 196%, 213%로 초과 완수함으로써 일고생산기록을 세차례나 돌파하고 70일전투 3월 주체철생산목표도 월연 넘쳐 수백만 미터의 황철로동계급은 4월에 들어와 첫날 주체철 생산실적을 또다시 235%로

깨어올리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하여 산소열법용광로조업이래 하루 주체철 최고생산기록이 또 한차례 갱신되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로동계급

에게 호소문을 보낸 철의 도시 승림땅에서 갱신없이 떠오르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은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날아났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 있는 온 나라 인민군민에게 승리의

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급속공급부담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급

속공급물에서 주체철, 현대철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 생산을 늘여야 한다.》 실로 어찌와 노닐이 다르고 오퍼와 베일이 다르며 시간이 다르게 거세어지는 증산의 불길이다. 당 제7차대 회장으로 향한 혁명적전군의 앞장에 자기들을 내세워온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실감없이 새겨안은 황철로동계급은 70일전투 3월 주체철생산목표를 초과완수한 기세도 높게 4월에 들어와 주체철생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세와 그 가련한 주구 박근 혁명적배당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난립하는 지금 조선로동당의 절대적

존엄을 옹위하고 밋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선봉에서 불은기를 높이 들고 내달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띠며, 천재로 세겨안으며 지칠 줄 모르는 공격정신을 발휘하고있다. 이달에 들어와 련합기업소인

업에서 높은 안전성을 보장하고 종전에 비해 부연관공급량을 낮추면서도 주체철생산을 장성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슬라코준위속정장치와 보가스 분석장치를 창안도입하던 두뇌진, 기술진의 위력이 다시금 날김일이 발휘되고있다. 련합기업소 기동애출선동태원들과 승민시인의 녀맹원들은 주체철생산수평으로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위장을 정하고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우렁차게 울리고있다. 승민시인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주체철생산현장에 성의이런 지원물자들을 안고 매일 잊아오 용광로적

생산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이들은 이미 산소열법용광로에 새로운 기술혁신인들을 받아들인대 맞게 부연한 공급량을 낮추면서 주체철생산을 높이는 데 선차적힘을 넣고있다. 그 과정에 용제시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최종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계속 탐구하여 일선에 속속 도입하고있다. 원료공급업단 전문원들속에서 맞바나가는 공격정신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들은 굳이 진 기준판, 정칙된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현실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원료, 연료배합 비율을 무단히 찾아내고있다. 산소2직장 로동계급이 싸우는 고지에 단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산소불리기의 우월한 동음을 지켜나가고있다. 황철이 어찌를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판히 밝혀주시며 비약의 용마에 태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오날의 70일전투의 자랑한 실적으로 보답할 임당임고 위엄없이 불타는 황철로동계급의 충정과 혁명적기상에 의해 성파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현사자 김 중 성



철강재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총돌격, 총매진

재령광산에서 상반기 신철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뽐내며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수령의 유혹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3월 31일 재령광산에서 련철생산의 소식이 전해졌다. 70일전투가 시작되어 단 24 일만에 최생산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이 첫 일군들과 광부들이 또다시 상반기 최생산기록을 100.5%로 넘쳐 수행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이

시기에 비해 3배이상 달하는 높은 생산실적으로서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될 때 일어나 큰 위훈을 발휘하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70일전투 최생산기록을 기한전에 절명한 광산에서는 상반기 최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금 총열기하였다. 당, 행정일군들은 혁명의 년대기술에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을 받들어 최생산을 높여야 할이라는 전제대태처럼 삼미 투쟁하도록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어왔다. 승리의 5월에도 향한 광산일군들과 광부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일터마다에서 총폭발되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에 맞

게 이곳 광부들은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거나 바꾸고 교대차 따르던 치열한 돌격전을 벌였다. 광학기술의 작업시간이 종전보다 10시간이나 더 늘어난 가운데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예비와 가동성을 총동원하여 실용물을 2배로 높여왔다. 그것도 성취하지 않아서 판안이 떨어지거나 함부로 보충물이나 천여m의 소경굴진에 보장하여 수직개조에서 더 많은 최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보장단위들에서는 손으로 피대를 둘러싸서라도 거이여 전사생산을 보장한 1950년대 근자대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발휘되어 불타는 투쟁에서 많은 광의 부속물과 재관물들을 생산보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임심됨체가 되어야 한다.》 장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배일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는 바쁜 시기에 자강도의 수 많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분공들과 분공교를 배우고, 배우고 영웅적인 3호 발전소건설장으로 단원하고있다. 70일전투의 불길속에 탄원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대이민 경제1사범대학 환경과학부 환경생물공학부에는 두에산물 화공부 수석교수 김교원으로, 유정은동무는 산간지역 우시군 가이교공중학교 교원으로, 김일경동무는 하늘아래 첫 번째로 불리우는 광림군 소동교공중학교 교원으로 단원 하였다. 최우동생은 그대들이 교장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도 기다리던 중학시절의 선생님께서 당의 품에 안아주시고, 정철동무들이 백두전투에서 단원한것을 기념한 때 이어 학급의 체제군인들과 청년동맹원들인 유항수, 리수경 동무들을 비롯한 28명의 졸업

생들이 너도나도 백두전투로 단원해나갔다. 자강도의 대학졸업생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소행은 당파수행,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에서 청춘의 값높은 삶을 찾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 * * 평장도의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속에서 당 제7차대회로 앞두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심수준 신앙리에서 일어난 김옥주, 김은주지사는 련철로동계급을 이끌어가는 자기를 맡는 삼자연립은결정전선상에 보내줄것을 제하고 당이 부르는 곳에서 보람찬 청춘시절을 맞이할 결의를 다지였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모든 부문에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의 많은 녀맹원도 보람찬 대고조전투장으로 단원하고있다. 운흥군 용보로동자녀 녀맹원들은 시대를 따라가는 로력혁신자들로 강성국가건설에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있다.

정안북도건설지전철합기업소 건설지전철자들이 흥건도건설지전철장에서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종합기술소장위원회의 지도 밑에 현장지휘부에서는 지난 3월 2호제방과 4호제방건설공사를 밀고나기면서 안전지대에서 30만산대발파준비를 다그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30만산대

30만산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평안북도건설지전철합기업소에서 설종합기업소에서

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지전철자들은 용기맹렬, 기세충천하여 3호제방설도 및 철석공사파제를 매일 300%이상 넘쳐 수행하며 승리의 5월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다. **【특약기자 송 창 울】**

대발파에 필요한 화공물과 자재도 장시업을 확고히 앞세워 30만산대 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3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지전철자들은 용기맹렬, 기세충천하여 3호제방설도 및 철석공사파제를 매일 300%이상 넘쳐 수행하며 승리의 5월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다. **【특약기자 송 창 울】**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발현

자원전출하는 아름다운 소행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도의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이 총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대고조전투장으로 진출한것은 당의 품속에서 교양수행된 우리 청년들과 녀맹원들속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승고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김형적군의 10명의 청년동맹원들은 승리의 5월을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선군년전선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갈 마음과 기적과 위훈창조로 불꽃을 백두산영웅정년3호 발전소건설장으로 단원하였다. 또한 군의 70명의 청년동맹원들은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금강리에서 새로 일터서는 목장건설장으로 달려갔다. **현지보도반**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장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서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결사관철의 련철이래 학업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당 제 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70일전투의 철야 진군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피끓는 심장들 당중앙위원회로 드디어 이어놓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강선과 황철, 순천과 덕선, 대안과 락원, 풍향, 홍남, 풍성 등 전국각지의 대동업자들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속에 로동계급이 힘있게 장성하고있다.

공업전선에 나서는 새로운 전리대, 만리마기상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영웅적수령님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추경과 의리의 절충이며 수령님들을 따라 꽃피어 결어코는 혁명의 길을 당중앙위원회로 따라가며 조선로동계급의 역적같은 신념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성격과 지위를 수령 중심부로 기표하여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정식화하신것은 우리의 수백만 로동계급의 전선과 영예를 불꽃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총폭발시켜나가는 데서 전천후적 계기로 되었다.

전환시켜 로동계급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단결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제 사상, 선군사상교양, 사회주의교양, 신앙, 신념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등 우리 당이 전행하여온 사상교양사업은 어느 것이나 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중요성을 갖추도록 하는데 지향되었다.

위대한 사상과 신념을 만장일치의 계급은 혁명의 전투에서 나아가는 불패의 대오로 위용될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사상의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든든히 준비되고 고결한 애국충정과 백골불굴의 무지,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해나가는 가장 전진한 혁명가들의 대오, 애국자부대로 자라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목을 그대로 답습하여 나라의 발아를 보게 성 장한 여기에 조선로동계급의 본래가 있다.

사람들의 사상은 고집불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한다. 사회주의전선이 진척되는 것과 함께 로동계급의 모순생태와 사회주의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로동계급을 지닌날의 무산적 결과로 잘못 같이 볼수 없다.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어찌날의 혁명적로동계급도 사상적으로 변질되며 결국에는 사회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부패타락의 길을 걸을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천 초년과 동유럽나라들의 불행이 자신들이 피로써 정취하고 탐욕으로 전선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급적이익을 반동적공세를 감행한 것 단 하나의 반칙을 가 할 대신 괴업으로 그에 합세하는 정령과 노릇을 한 비극적사실이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이 장기화되고 간교한 질투로 로동계급을 끊임없이 혁명화하고 특히 새 세대 로동계급에 대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온 우리 당의 명도는 참으로 현명하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위대한 선군시대에 창조된 혁명적근정정신을 따라 배우고 구현하는데서도 수령의 로동계급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도록 하였다. 고난의 시기에 혁명적근정정신을 구현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장의 불꽃, 파란의 불꽃, 강선의 불꽃, 함남의 불꽃로 끊임없이 승화되어온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질이 새로운 주제 100년대진군에서 만리마기의 기상으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현실은 로동계급에게서 사상의, 대의의, 단결의 대가 뜻이 이어지도록 해 내 제나 같은 관습을 버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명도가 얼마나 선견지명하는 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로동계급을 무궁무진한 창조적과 높은 문화소양을 지닌 사회주의전선의 핵심부대로 키워주신 자애로운 스승이시다.

역사적으로 부르주아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로동계급을 무식하고 미개한 존재로 모욕하며 천시하였다. 이것이 착취사회를 뒤집어엎을 위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정신을 막아보려는 본능적인 적대감과 저들의 지배와 착취의 용기에 대항중을 위해 여수려는 반동적침략의 발원지라는것은 두 말할것도 없다. 로동계급의 존엄과 무한한 힘은 절대위인들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존중되고 최대로 펼쳐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인민의 창조적능력을 믿고 내세우도록 키워주시었다. 혁명발전의 대 단계이다. 당이 맡겨준 거창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력이 시대를 적중시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강렬한 힘으로 증대되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다. 오늘 우리의 현대화, 근대화, 근대화, 근대화를 위한 투쟁과 혁명적 돌파전에서 로동계급이 이룩하고있는 영웅적 성과들은 그들을 숭고한 사상정신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을 겸비한 힘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직접적담당자, 경제강국건설의 개척자, 적후병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와

메우고 생각할수 없다.

선행론에서는 로동계급을 창조 물질적부의 창조자로 보면서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용감한 지위에 내세우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을 새 문화의 창조자로 키워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문화도 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전리를 밝히시고 새로운 사회주의문화창조에서 로동계급의 역할을 높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로동계급의 문명된 모습은 순탄한 시기이나 고난의 나날이나 정신도덕적으로 전진하고 자기 공상과 일터를 사회주의로 돌리는데도 훌륭히 꾸려나가는 데서도 찾아볼수 있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명적이고 진취적인 애국소공정에서도 는 별수 있다. 세상에 조선로동계급처럼 고상하고 문명한 로동계급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근로의 창조물들이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시키는 데 리워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 로동계급의 지체와 재능, 맘이 갖든 모든 재능들은 인민의 건전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진정한 사회주의재부대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각별한 사랑속에 가장 행복 한 삶을 누려온 근로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우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말그대로 로동계급의 세상이다.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명칭과 모든 로선과 정책들, 사회주의적 원칙들, 생활전선에서 로동계급의 숭고한 리념을 새기신분도 위대한 수령님들이고 끊임없는 선지지도의 길에서 생신 수자이다. 그들의 생활현전을 먼저 헤아려 시며 사랑의 전선들을 수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들이시다. 세상에 있는 로동계급도 없고 국가지도자들도 없었던 위대한 장군님처럼 수천적지하막장까지 뚫고 찾아가서 로동계급의 작업조건을 따먹어 보살피시고 로동계급의 지대한 투쟁정신과 담금 직판도 없애고 혁명적기질이 속여 경의를 표시하신 명도자는 없다. 사정에 처한 몇명의 로동계급을 위해 관용행위가 하늘을 날고 로동계급의 열광에 후끈거리는 불꽃을 따먹어 보살피고 나라는 중대사를 결정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의 기본분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사실들이 과연 로동계급의 지극 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상조차 할수 있는 일인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발휘하는 대중적영웅주의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로동계급을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렬한 영웅적 사랑과 품목을 따라가며 조선로동계급의 역적같은 신념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성격과 지위를 수령 중심부로 기표하여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정식화하신것은 우리의 수백만 로동계급의 전선과 영예를 불꽃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총폭발시켜나가는 데서 전천후적 계기로 되었다.

전환시켜 로동계급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단결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주제 사상, 선군사상교양, 사회주의교양, 신앙, 신념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등 우리 당이 전행하여온 사상교양사업은 어느 것이나 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중요성을 갖추도록 하는데 지향되었다.

위대한 사상과 신념을 만장일치의 계급은 혁명의 전투에서 나아가는 불패의 대오로 위용될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사상의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든든히 준비되고 고결한 애국충정과 백골불굴의 무지,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해나가는 가장 전진한 혁명가들의 대오, 애국자부대로 자라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품목을 그대로 답습하여 나라의 발아를 보게 성장한 여기에 조선로동계급의 본래가 있다.

인민의 창조적능력을 믿고 내세우도록 키워주시었다. 혁명발전의 대 단계이다. 당이 맡겨준 거창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력이 시대를 적중시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강렬한 힘으로 증대되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다. 오늘 우리의 현대화, 근대화, 근대화를 위한 투쟁과 혁명적 돌파전에서 로동계급이 이룩하고있는 영웅적 성과들은 그들을 숭고한 사상정신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을 겸비한 힘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직접적담당자, 경제강국건설의 개척자, 적후병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와

메우고 생각할수 없다.

선행론에서는 로동계급을 창조 물질적부의 창조자로 보면서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용감한 지위에 내세우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을 새 문화의 창조자로 키워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문화도 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전리를 밝히시고 새로운 사회주의문화창조에서 로동계급의 역할을 높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로동계급의 문명된 모습은 순탄한 시기이나 고난의 나날이나 정신도덕적으로 전진하고 자기 공상과 일터를 사회주의로 돌리는데도 훌륭히 꾸려나가는 데서도 찾아볼수 있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명적이고 진취적인 애국소공정에서도 는 별수 있다. 세상에 조선로동계급처럼 고상하고 문명한 로동계급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근로의 창조물들이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시키는 데 리워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 로동계급의 지체와 재능, 맘이 갖든 모든 재능들은 인민의 건전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진정한 사회주의재부대로 빛나고있다.

1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태어나고 억세게 성장한 우리의 로동계급, 주체형의 로동계급이다.

둘이커보면 현대산업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고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대열이 급속히 확대된 로동계급은 사회의 그 어느 계급보다 혁명적과 단결력이 강한 선진적인 계급으로 공인되어왔다. 그러나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분석과 로동조건, 계급적지위의 특색으로 로동계급의 특유한 혁명성과 대항적성을 도출하고 사회혁명의 물질적력사적수요로서의 신봉적, 주도적역할을 논하는 관점과 비준으로써는 조선로동계급의 대열이 훌륭한 사상정신적특색과 영웅적창조주위에 대하여 흠뻑 해석할수 없다.

로동계급이 자신의 사회적역할을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운명의 주인, 혁명의 전위부대로 위력을 떨치기 위한 첫째 불패도 다할한 수령의 명도를 받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로동계급을 낳는다. 수령의 위대성까지 로동계급의 혁명성, 전투성, 영웅성이다.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총속에서 불굴의 혁명정신과 무한한 힘을 지닌 나라의 혁명적대열이 불, 핵심부대로 자라났다. 불세출의 위인들의 명도하에 장구한 혁명의 난대들을 애국충정의 영웅적위풍으로 빛내이며 가장 존엄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대열은 행이고 영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맡아들려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로동계급을 사상과 신념의 장자들로 키워 주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사상적의 지위와 영웅적 사상정신적높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핵심부대로 되지만 사상과 신념에서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정신도덕적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해방전쟁이만 하여도 참으로 우리 로동계급은 사상적으로 미숙하였고 조직적단결도 부족하였다. 고소할이적공성과 골풍의식을 비롯한 식민주의의 늪은 사상전선에도 남아 있었다. 특히 전투에 용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대열이 짧은 기간에 더욱 높아지고 여기에 혁명적으로 육성되자 제네랄의 농민, 소산인, 수공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정들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맡아들려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로동계급을 사상과 신념의 장자들로 키워 주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사상적의 지위와 영웅적 사상정신적높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로동계급이 혁명의 핵심부대로 되지만 사상과 신념에서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정신도덕적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해방전쟁이만 하여도 참으로 우리 로동계급은 사상적으로 미숙하였고 조직적단결도 부족하였다. 고소할이적공성과 골풍의식을 비롯한 식민주의의 늪은 사상전선에도 남아 있었다. 특히 전투에 용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대열이 짧은 기간에 더욱 높아지고 여기에 혁명적으로 육성되자 제네랄의 농민, 소산인, 수공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정들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이 지닌 창조적힘과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귀중히 여기시였을뿐더러 혁명의 전에서 그 힘을 무병과 만의 대 힘으로 키워주시어 로동계급을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사회계층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화하면서 배운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인 공작대학을 창설한 역사적사변에 이르기까지 우리 로동계급을 위한 국가적지책에서도 뜨겁게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부강조국건설수령으로서 이 령고 방대한 과제들이 나날 때마다 로동계급을 번듯 찾으시고 대담하게 맡겨주시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신축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창조와 전선의 영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로동계급에게 돌아가시어 그들이 자기 땅에 불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배양, 대미약의 모술과 방법론을 제속하도록 하나하나 배우게 해주셨다.

2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을 앞장서서 보위하며 조국수호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풍을 창조해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단심 당을 따르고 맹목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심, 이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관통하는 근본력이다. 우리 로동계급에 있어서 수령옹위, 조국수호, 혁명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을 앞장서서 보위하며 조국수호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풍을 창조해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단심 당을 따르고 맹목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심, 이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관통하는 근본력이다. 우리 로동계급에 있어서 수령옹위, 조국수호, 혁명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을 앞장서서 보위하며 조국수호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풍을 창조해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단심 당을 따르고 맹목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심, 이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관통하는 근본력이다. 우리 로동계급에 있어서 수령옹위, 조국수호, 혁명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을 앞장서서 보위하며 조국수호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풍을 창조해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단심 당을 따르고 맹목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심, 이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관통하는 근본력이다. 우리 로동계급에 있어서 수령옹위, 조국수호, 혁명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을 앞장서서 보위하며 조국수호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풍을 창조해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단심 당을 따르고 맹목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심, 이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관통하는 근본력이다. 우리 로동계급에 있어서 수령옹위, 조국수호, 혁명

조선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을 앞장서서 보위하며 조국수호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풍을 창조해온 주체혁명의 핵심부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단심 당을 따르고 맹목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심, 이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관통하는 근본력이다. 우리 로동계급에 있어서 수령옹위, 조국수호, 혁명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다 프르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막 사 각 하

나는 세네갈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포의에 맞게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4월 4일

《김일성, 빛나는 존함》

데양현에 즈음하여 멀리대선성과 경의를 위한 아르카디가 3월 21일 인리대중에게 《김일성, 빛나는 존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4월 15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이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주석의 존함을 태양이라는 뜻이다.

김일성, 그의 존함은 민족해방과 자주사회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일찍이 10대의 어린나이에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가 나아갈 길을 밝히 해주셨다.

그이께서는 강고한 항일대선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과 전투부국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나라 인민의 민족해방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시었다.

김일성, 그의 존함은 숭고한 덕망과 고결한 의리의 상징으로 빛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총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으로 사회주의협동벌이 세차게 들끓는다

수령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재령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뜻깊은 4월을 맞이한 재령벌이 세차게 들끓고 있다.

안악군, 선천군,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수령의 유훈관철의 불길높이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공을 올릴 발판을 열의안고 세발일군주에 한사람같이 떨치기 위한 열의와 열정을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 우량종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회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준비장대회를 철저히 세워 알뜰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재령벌의 포전들을 찾고찾으며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가 모를 든듯 질러 적어 모래기를 하는데 있다. 모래기를 채우며 수확을 위한 수명님들의 고시대로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던 다수확은 문제였다.

당조직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이 신념을 뼈에 새기고 수령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정신

를 높이 발휘하여 70일전투의 분분초초를 전제하는 로력적성파로 밭내이나가도록 화산식장지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있다.

군청농동장경영위원회들의 일군들은 합작모양의 돌과구를 모판짜꾸리에서부터 열어 놓을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화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들끓는 포전에 전투파지를 정하고 모판간들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일선 단위를 따라바라보거나 좋은 경험들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다.

이들 계기로 군들에서는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들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안악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씨뿌리기는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수호전적 제 1대 제 1선봉에서 대승전공을 높이 올리기 위한 열의로 분발하고 있다.

군일군들은 영안단지근로자들

함경북도에서

포전마다 생명수 흘러넘치게

함경북도안의 저수지공사장들에 자력자강의 불길이 세차게 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명원군 신계저수지공사장이 무분분할 뿐 아니라, 군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무조건 이 공사를 끝내도록 출혈에 기어이 수백평을 찾아 현장지휘를 힘써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정량 씨뿌리기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삼지정형동중에서 만든 씨뿌리는 기계에 대해 직접반대로 현대적 차폐지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재령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수령의 유훈관철의 불길높이 최고의 분발과 최대의 노력으로 전제하는 로력적성파를 창조하기 위해 힘찬 전진군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현지보도반

를 찾았는가?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순간순간 자신을 세뇌하며 매일 종전을 비쳐 2배이상의 성과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원군 안원저수지공사에서도 자강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공사가 완공되면 안원저수지의 수확과 낮은 수백평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켜 많은 알곡을 증산하고 적지 않은 정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맹세한 종래의 불꽃이 명심하고 맹세한 종래의 불꽃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적효율무를 비롯한 군의 일군들은 매일 현장에서 체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줌으로써 종래의 불꽃을 사기를 북돋아 주고 많은 문제점들이 만가동, 단부위의 동음을 높이 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꽃대원들은 매일 800㎡의 성과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시기에 비해 3배의 공사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다.

당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종전을 맞이하여 대승전공을 올리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가는 이들의 힘찬 투쟁은 훌륭할 결실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장근영

논밭갈이실적 1.5 배

각지 농촌에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 맹세한 각지의 농업부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논밭갈이전투에서 비상한 정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 1대 제 1선봉에서 대승전공을 높이 올리기 위하여 영농공정준비장대회를 철저히 세워 알뜰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전원노동에서 논밭갈이를 본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

안주시에서 내부에서 직구당구동원하여 총정의 3번속을 모두 6번속으로 개조함으로써

논밭갈이실적 1.5 배를 올리고 있다. 연탄에서 앞선 갈이방법을 받아들여 트랙터의 부동소를 비롯한 갈이수단들의 현대적 고도화를 위하여 논밭갈이를 넘겨서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선천군에서는 군일군들이 1-2미터의 부동소를 위한 영안단지를 맡아 농장원들을 고무추진체로써 갈이실적을 올리고 있다.

세주에서 논밭갈이실적은 수일대의 트랙터들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부속품들을 해결함으로써 농장원들이 총진보다 근한일 앞당겨 갈이기를 끝내고는

물길굴철관설치공사 결속

미루벌에서

이 공사는 수백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운반하는 철관들을 수백m의 정사면을 따라 물길굴까지 실어올려 굴막으로 수심, 굴속으로 댁수심구간에 높이와 설치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다.

농업에서는 미루벌농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이 공사를 수백리는 철관들을 수백m의 정사면을 따라 실어올리기 위한 결사전을 벌려나갔다. 이들의 열의와 투쟁으로 철관들을 물길굴까지 실어올리기 위한 전투는

2월 29일까지 성과적으로 끝났다.

자력자강의 기상은 신계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열의와 정진력으로 세차게 나열했다. 그들은 육중한 철관들을 물길굴안으로 한치라도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원수들의 대결에 맞서며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데 힘써 노력했다. 800㎡의 성과를 올린 뒤 철야진군을 다그쳐나갔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당제 7차대회를 지향한 로력적성파를 내세워 대승전공을 올리는 이들의 분발의 투쟁에 의하여 공사는 계획보다 10일정도 앞당겨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본사기자

종자싹퇴우기에 대양열을 리용

철산군 동평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문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종자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70일전투에 떨치나선 철산군 동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비종자싹퇴우기를 종자처리장이 아니라 말포장에 지어주는 박막온실에서 대양열을 리용하여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온실마다에서 2개 작업단에 필요한 땅의 종자싹퇴우기를 하도록 하였다.

중년에는 종자처리장에서 온도를 보장하느라 귀중한 석탄열을 애용 하였다. 하지만 대양열



중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도록 농업근로자들을 고무추진하고 있다. -북청군 도성농장에서-

을 리용하면 종자를 싹퇴우는데 필요한 온도를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력도 절약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겨 자력자강의 대진군에 떨치는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수 있다.

일군들은 이런 확신을 안고 올해에도 싹퇴우기에 이 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제 2작업단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그 기술요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였다. 먼저 땅속에서 올라오는 평기를 차단하기 위해 온실안의 적당한 면적의 땅을 일정한 깊

이로 파고 복제기같은것을 세워 날게 하였다. 다음 그우에 가마나 박막을 씌우고 여기에 피복한 종자를 일정한 두께로 편 후 다시 박막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싹퇴우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종자무지의 높이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뒤쪽이면서 습도에 맞게 물을 뿌려주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싹퇴우기를 기술적으로 다루는데 충분한 모를 기술수 있는 팀과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농장원들은 많은 일에서 책임성을 높여나갔다.

본사기자 황철민

중요한 다시마작황 마련, 매일 수백씩 수확

구미포 바다가 양식사업소에서

구미포바다양식사업소의 양식장들과 포구에 바다만풍기의 노레소리 드높다.

당정핵심위원회의 합성노력이 결집되어 드물 다시마작황을 마련한 이곳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낚바다와 싸우며 과학적인 수확방법을 매일 수백의 다시마를 수확하고 있다.

결과 3월생산계획의 2배에 달하는 수천의 다시마가 생산되어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할 수 있는 물과기를 얻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따라 일떠서고 있는 축산과 수산부면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과 낚배온실, 배양장 시설이 온몸을 총동원하여 하야 합니다.》

수산전선적인 다시마생산의 적지 않은 몫을 맡고있는 이곳 바다가양식사업소에는 높은 전

사회주의농민전선의 병기장을 지켜

중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부터 역성농기계공장은 매일 아침 유다란 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많은 종업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군인의 협동농장으로 떠나고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가들과 일꾼들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70일전투목표를 세우면 되었다.

초급당일군은 전투목표로 선정된 종업원들을 따져볼수록 생각이 깊었다. 배양장부속을 비롯한 일부 농기구는 생산수가 적었기때문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협동농장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방도는 없었는가.

초급당일군은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묘안이 나왔다. 협동농장들이 나가 수리전투를 벌여야 하는것이였다.

협회의가 끝나자 초급당일군은 협동농장들이 나가 수리전투를 벌여야 하는것이였다. 협회의가 끝나자 초급당일군은 협동농장들이 나가 수리전투를 벌여야 하는것이였다.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자

벽성농기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수리전투를 벌였다.

초급당일 김공무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양면적인 열의에 맞게 조직적지시업을 더 거두 민중없이 파괴고였다.

협업원들모두가 한계 협동농장의 집중적으로 나가 분무기수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15개 조로 나누어 협동농장들이 나가 수리전투를 벌여도록 하였는데 이 방법은 실적이 적었다. 한계 단위의 집중적으로 수리전투를 벌여야 하는것이였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농장들이 말려나 수리전투를 더욱 늘일수 있게 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기풍을 발휘하게 된것이 더 큰 성과였다.

대성협동농장, 원평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인의 협동농장들은 협정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의 발자국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용돌이를 높이 평가하며 매일 저녁 전투목표와 함께 중정의 70일전투기풍에 가세하였다.

이런 사업은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공장에서는 협동농장들이 요구하는 분무기와 농기구수리를 제때 해주면서 도 계책을 펼쳐서 수행하게 되었다. 4월에 들어서서 집단적헌신을 창조하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자! 70일전투의 더불어 생겨난 이런 투쟁기풍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본사기자 장철범



정주트랙터부속품공장의 로동계급이 중정의 70일전투에서 헌신적인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전투가 고조될수록 공장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부속품생산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짜고쳤다. 특히 구상화육원추진에 의한 부속품생산방법으로 중정의 불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공장로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도당위원회에서는 실행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 주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20여종에 1만 6천여개의 부속품생산과제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총동원전을 벌려나가고 있다.

부속품생산에서 혁신

주동적정의 로동자들은 교대당 한자리의 파를 더 생산하기 위한 증진투쟁을 벌여 출제시간을 종전보다 2/3로 단축하였다. 이들은 울도에서 수 밖의 정황이 조성되자 기발한 착상으로 로를 한시간만에 피할려 최후생산을 계속하였다. 울선로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해체적 주물소생산을 비교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였다. 가공장장 로동자들은 기술능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부속품공에서 전제 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전기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변압기용 개조하여 중주파용도로의 단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고 공무동력장 로동자들은 용

의 정신으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70일전투목표를 뜻깊은 대양열을 오 확고히 점령할수 있게 되었다.

현지보도반

《조선의 핵보유야말로 온갖 전횡을 다 부리고있는 미국을 길들이는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세계의 공정한 목소리

주제적혁명무력의 강화발전 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도 하여 우리 나 라에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다발적 으로, 연방적으로 일어나 전체 게로 하여금 커다란 충격속에 휩싸이게 하고있다.

조선반도에 최악의 핵전쟁발 발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엄혹 한 경제속에서 핵무기개발화 사업과 만도르케트 대기권제 돌입한경도의시험, 대륙핵로케 트로켓발동기 지상분출 및 핵 실험장치의 시험을 지도하시고 강 위력한 우리의 핵력제수단들 을 장비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전학군의 만도르케트발사훈련 등도 보아주신 매우명랑의 혁명활동소식들이 우수전과를 라고 삼시에 전해졌다.

《김정은은 1위인장에서 핵무 문관계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 면서 핵탄을 경량화하여 만도르 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이것이 진보 핵력역 량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핵 실험장치는 결코 미국의 독점 놀이 아니라 조선 선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전학군의 만도르케트발사훈련을 보시고 남 조선적진전대의 주요라격대 상들과 이시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전학군의 모든 핵력제수단들을 항시적일 만사태기상태에 들것 을 명명하시였다.》...

영국의 로이러, 미국의 VOA 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신, 신 문, 방송들이 우리의 핵무력강 화소식을 긴급속보로 전하고있

을 세계의 수많은 인터넷 들도 《조선의 김정은영도자께서 새로운 핵시험과 만도르케트 발사 를 지시 하시였다.》, 《김정은영도자 핵 및 로케트시 험들이 활발하고있고 인명》 등 의 제목을 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빠른 시일안에 핵탄 투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 능한 여러 종류의 만도르케트시 험발사를 단행할것을 지시하신 부분을 두드러지게 보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보악무도한 적대행위로 조성된 경제와 조 신핵력발전의 합법적요구에 맞겨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킴에 대한 토착이 제시 되었다.

그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강인담대한 배짱과 불굴의 의지, 핵의 당당으로 적대세력 들의 악의에 찬 비방과 방해 활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철저히 구현태오신 경제개발명 령조선의 계승이고 실행태오신 새로운 병진로선관철을 일관하 게 밀고나시였다.

수년째는 민족사에 영원한 중 지부를 찍고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오늘의 우리 공 화국의 모습에서, 만방에 떨치 는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에서 세계는 주체적핵무력건설의 정 당성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수산탄 시험이 완전성공한 소식의 세 계 광범한 출판보도물들을 통 해 보도되자 100여개 나라 정

당, 단체들, 각계 인사들과 국 제 및 지역기구들이 다양한 형 식과 방법으로 연대성황들을 벌여왔다.

브라질자유주요당 부위원장, 민주중고로동당 총비서,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 표는 수산탄시험 완전성공으로 조선은 미국의 아시아지배권 력, 세계경제전략에 심대한 타 격을 가하였다, 수산탄시험성공 은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절음을 또 하나 내질은것으로 판단하고 강조하였다.

영국선공산당, 영국선공정치 연구협회,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조, 영국조선선선협회를 비롯 하여 각국의 정당, 단체 인사 들도 우리의 핵시험성공에 대 해 미제의 대조선적대정책 의 전면적실세, 총파탄을 선고 한 핵사적사면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경제발전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이루지 못 한 지대한 성과를 달성한 조선 이야말로 세계적인 핵강국이 라고 찬양하였다.

이러한 찬사와 함께 조선의 핵보유, 수산탄보유의 필연성을 논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갔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수산탄시험은 미국때문에 이루 어진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 경제적난관 을 겪고있는 조선은 나라의 안 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 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고 하던 이 나라의 핵보유를 미국의 대 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필연적 산물로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그들은 또한 얼마전에 있는 만도르케트발사를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에 따른 대응조치 로, 그것이 결코 조선반도정세 를 격화시키지 않을것으로 분석 하면서 조선인민군 전학군의 만 도르케트발사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 나라에 있는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연대단체들과 인사들 도 신생조선의 출현과 함께 시 작된 미국의 위협은 어느 하루 도 중단될적이지 않다, 미국의 침 략학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 의 평화와 안전은 조선이 자체 의 핵을 보유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웹사이트 《우르스카아 브라우 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은 초위험 요소를 방불 케 하고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 도 외부로부터의 항시적인 위협 과 연관되어있다.》

미국과 장기간 대결하고있는 속에서 침략을 받을 경우 안전 을 담보할수 있는것은 이 침략 적인 국가에 만족할수 없는 손 실을 줄 능력 즉 핵무기뿐이다. 약육식의 법칙대로 살아가 고있는 세계에서는 달리는 필수 없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 아, 이라크는 침략자들에게 짓 밟혔다. 수리아는 격으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도 우리가 침략자들 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조선 이 이 일의 주권국가의 정정 당당한 권리를 시비할수 있겠 는가?》

브라우다 브리모리야신문사 편집부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 과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 조선 의 수산탄시험과 핵보유에 긍정 적으로 반응하였다는 사실은 자 기 힘을 키워 자기 운명을 지켜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이 진보적인것들속에서 열렬한 지 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을 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브라질의 한 정치가는 핵시험 을 한 북조선이 핵 국제공동체 의 《규범》의 대상이 되어야 하 는지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 렇게 지적하였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운명을 보면서 북조선사람들이 과연 무 엇을 생각하고있는가?》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수없이 학살하 였다.

이러한 핵사를 되풀이하지 않 기 위해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 하였다.

미국은 60년이상이나 조선과 전쟁상태에 있지만 강타 공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 나라의 인터넷트롬에서 들 어는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 핵전쟁장 신이고라 라방이 비핵국가일 때 놓아주는것은 핵전쟁위협뿐이 다, 미국의 핵공군은 조선을 핵 억제력강화로 매년 군본요인 이라고 까마귀처럼 핵으로 세계 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욕을 폭로하는 글들이 실렸다.

어느 한 대학교수도 조선은 시 급 적대세력들의 포위속에서 진전하고있다, 세계는 조선의 현실을 오도하는 어용수단들의

모략선전에 속아넘어가지 말아 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으로, 자위적핵무력강화로 매년 약 의 나라이며 핵비국, 핵전과 국인 미국에 대한 단호는 비단 로세아와 브라질에서만 러져나 온것이 아니다.

코지 않은 나라 조선이 어 렷게 세계핵력강들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 을 한 북조선이 핵 국제공동체 의 《규범》의 대상이 되어야 하 는지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 렇게 지적하였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운명을 보면서 북조선사람들이 과연 무 엇을 생각하고있는가?》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수없이 학살하 였다.

이러한 핵사를 되풀이하지 않 기 위해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 하였다.

미국은 60년이상이나 조선과 전쟁상태에 있지만 강타 공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 나라의 인터넷트롬에서 들 어는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 핵전쟁장 신이고라 라방이 비핵국가일 때 놓아주는것은 핵전쟁위협뿐이 다, 미국의 핵공군은 조선을 핵 억제력강화로 매년 군본요인 이라고 까마귀처럼 핵으로 세계 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욕을 폭로하는 글들이 실렸다.

어느 한 대학교수도 조선은 시 급 적대세력들의 포위속에서 진전하고있다, 세계는 조선의 현실을 오도하는 어용수단들의

남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내려 놓는것보다 더 어려서웃은 없 을것이라고 한 조선의 주장은 미국이 독단치는 오늘의 세계를 넘어서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말 이다. 《내할신문 《다이어리 맥스 프레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AP통신 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북조선은 핵을 보유한 것 을 전락적필요에 따른것으로 간주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 에 수십년동안 북조선에 열리 기도 하고 제재도 하였지만 그 것이 은을 내지 못하고있는것 이다. 북조선이 주장하는 자위 는 특별한것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모든 핵보유국들이 다 하는것이다. 미국은 1950년- 1953년 조선전쟁이 정전협정 체결로 종결된것으로 하여 북 조선과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 다. 이런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핵 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는 그들의 주장이 다른 핵보유 국들과 다른 위급을 받아야 하 는가고 반문하였다.

민주중고신문 《라브니르》 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게재 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핵이 마치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인듯이 떠돌아다니다 그 브리를 넘쳐넘어 버렸다. 조선이 핵을 포기하 면 그 어떤 《핵재》이라도 배를 것처럼 수신을 받기로 하였다. 미국의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핵실험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를 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어떤것인가?》

이 나라들에서 국민과 인원은

만심장이 되고 온 강도가 유혈 캄국의 반무장으로 화하였다.

평화는 평원이나 라틴적인 회 당락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 라는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체 득하고 백속이다 새긴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의 핵시험의 메아리는 정 의의 용해하여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권리를 국제사회에 새겨 주었다.》

실로 주제조선의 새로운 병진 로선, 자위적핵무력강화는 힘이 없는 정는 횡포한 핵의 앞애에 풍지박산나고만다는 핵사의 교 훈을 다시한번 세계에 똑똑히 새겨주었다.

하기에 세계는 이렇게 공인하 고있다.

《조선의 핵보유야말로 온갖 전횡을 다 부리고있는 미국을 길들이는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작용하 고있는것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 의 억제력이다.》, 《진짜 강대국 조선이 국제정세를 주도하고있 다.》, 《조선의 말 한바탕이 음 적일 때 세계가 흔들리고있 다.》,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지구중동》》

정의의 핵억제력을 전세계 를 어리고 제국주의야성 미국과 그 에 추종하여 명명명명하는 세력 들이 한반도에 핵무력강화 운영 의 한복판을 잇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핵무선대 국의 힘은 더욱 무궁무진할것 이며 그 힘을 당항차 이 세상에 없 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패륜아, 랭혈한들의 교활한 말장난

생리학적 당한 혐음들의 아픔을 교묘하 게 악용하여 동족을 무리 칠들은 박근혜 당의 더러운 악습이 또 말쑥하였다.

최근 괴뢰들이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을 신청한 남측대사관측에 원방이상이 세 상을 떠났고 앞으로 사망률이 더 높아질것 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마치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에 관 관심이 없고 있는듯이 범 서를 괴문하였다. 그야말로 위선과 기만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그때 그렇게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에 대 해 격정하고 판심하는자들이 지금껏 그 에 한소리 해방을 하며 갖은 못것을 일삼았 는가. 말로만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을 떠 뉘고 실행에서는 그것을 기를 쓰고 가로막 는 뽕뽕한놈이 도대체 무슨 날애에 이러저 러가랴 할 뻔했스런데 놀라지 마라.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을 사사건건 방해하 며 제손으로 북남협력과 교류의 길에 무거 운 차관봉을 가로질러놓는 박근혜세력당 이 출어전 가족, 친척들의 운명에 대해 나날 이 핑계는 모순도 이만저만 많았이 아니며 걸림 철학들의 이른 상에서 모순을 하고 인물을 모욕하는 악행이 아닐수 없다.

불편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중의 하나는 북과 남의 협력이 생사조차 모르고 갈라져살고있는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사주기 위 해 우리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밑받침에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그 것이 응답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불순한 북측에 인도주의문제에 처 북남협력에 악용하여 의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미쳐나선 박근혜역 케당의 반인륜적정당때문이다.

지난해의 일을 상기해보자.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시종일관 진지하였다. 그리 릴 엄중했던 지난해 8월의 경제속에서도 북남고위급회담급속이 마련되고 그 때 따라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것은 우리 의 주동적인 조치와 이방, 동포애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그런데 이방의 방해는 우리의 성 의에 광란적인 북침전쟁발발소동과 반공 화국 핵, 《인권》소동으로 도전해나감으로써 인도주의협력위기에 한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북남회담회담에 서도 우리는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언 을 내놓고 그 당위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 도 해주었다. 그러나 괴뢰들은 우리의 합리 적인 제언을 끝내 거부하고 미국과 야합하 여 북남대결상태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더욱 엄중했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으로 인도주의협력의 갈라져 이에 막아버린 박근혜역케당이 그것으로도 성취치 않아 나중에는 우리의 회고종언에 합류로 도전 하는 극악무도한 특대형도발망둥까지 부리 면서 북침전쟁발발의 위기를 최상으로 격화시켰다.

박근혜역케당이 하늘의 편자를 감히 거 리를 불측한 계획일에 대하여 옹호 못 할 대죄를 저지르면서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합 동군사연습으로 언저 핵전쟁이 터질것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함으로써 북

남사이에 대하는 물론 소소한 인도주의협력 을 진행할 여지조차 사라져버린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할진대 출어전 가족, 친척 들의 간절한 열망을 무반만한 도발과 핵전쟁 연습으로 짓밟아버린 배후들이 이제 와서 그 지명되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것일것이 자상할 하는데 온사할 하는 격으로 놀아 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온 겨레 는 박근혜역케당의 그 교활한 말장난이 너무도 억어져 질을 깨고있다.

박근혜역케당이 이번엔 그런 요소를 늘어놓는 목적은 뭇이다. 겉으로나마 저들 이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생색을 낸다고 하는것이 실현되지 못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국회》 의원장에게 말을 앞두고 동문인 민심을 휘유하 여 날로 심화되는 《정전》위기를 수습해버 려는것이다.

하지만 시커먼 속이 말쑥 풀어다보이는 그따위 가소로운 나날같은 세상사람들을 업어넘기려 하는 실로 어리석기 그 지 없다. 박근혜역케당이 그런 서 기만행위로 북남관계회피의 책임이 져서 버티고 구도의 총지휘기를 모면하기에는 역직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은 죄가 너무도 크다.

박근혜와 같은 대결당파자 권력의 자 리에 앉았는 한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을 포함한 북남사이에 그 어떤 인도주의적협 령도 있을수 없다.

박근혜당은 북남관계를 완전히 절판대 국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을 이에 맞춰놓은 그 죄악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존엄한 정절 을 면치 못할것이다.

영국선공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선 선협회기 미제와 남조선피해 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최 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 명은 미국과 남조선피해들의 《리콜》, 《독수리 16》합동군사연 습의 규모와 목적, 위협성을 깨닫 고 대항수 있다. 미국남조선합 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진정화할것에 불어넣었다. 조선반도에서 모든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세스프와 네발단계가 미국과 남조선피해로전망들이 범하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을 지지하여, 김정은조선대 《미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 정 당 중앙고위직위원장인 주제 사상연구소 책임자 이, 우후 브리모리야가 3월 18일 당회와 발표하였다. 그는 최근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최 고수뇌부를 노린 《공화국 적》, 《영양적격적》을 노릴수 있는

위협계선에 도달한 조선반도정세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단마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선협회가 미국과 남조선피해 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규탄 하여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 명은 미국과 남조선피해들의 《리콜》, 《독수리 16》합동군사연 습의 규모와 목적, 위협성을 깨닫 고 대항수 있다. 미국남조선합 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진정화할것에 불어넣었다. 조선반도에서 모든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세스프와 네발단계가 미국과 남조선피해로전망들이 범하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을 지지하여, 김정은조선대 《미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 정 당 중앙고위직위원장인 주제 사상연구소 책임자 이, 우후 브리모리야가 3월 18일 당회와 발표하였다. 그는 최근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최 고수뇌부를 노린 《공화국 적》, 《영양적격적》을 노리는 침략적인

위협계선에 도달한 조선반도정세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단마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선협회가 미국과 남조선피해 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규탄 하여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 명은 미국과 남조선피해들의 《리콜》, 《독수리 16》합동군사연 습의 규모와 목적, 위협성을 깨닫 고 대항수 있다. 미국남조선합 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진정화할것에 불어넣었다. 조선반도에서 모든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세스프와 네발단계가 미국과 남조선피해로전망들이 범하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을 지지하여, 김정은조선대 《미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 정 당 중앙고위직위원장인 주제 사상연구소 책임자 이, 우후 브리모리야가 3월 18일 당회와 발표하였다. 그는 최근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최 고수뇌부를 노린 《공화국 적》, 《영양적격적》을 노리는 침략적인

《미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 정 당과 주제사상연구소는 미 국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폐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것 을 요구한다.

가리야공산주의자총명 평 에위원장 이머니스 이와노브가 미제와 남조선피해들의 침략적 정책들을 규탄하여 3월 29일 당회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 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첫 수산탄시험과 인공 지위위성발사 등 수시로 반공 화국살상행위를 더욱 로발화하고 있다.

문제는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 전쟁성탄들과 별책이 전개되고 《리콜》, 《독수리 16》합동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적인 전 쟁행동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 서 자그마한 도발행위도 커다란 군사적충돌로, 세계대전으로 확 대될수 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판권적으로 범어 지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 연습의 위험성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분별없는 대결 당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 정 당과 주제사상연구소는 미 국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폐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것 을 요구한다.

가리야공산주의자총명 평 에위원장 이머니스 이와노브가 미제와 남조선피해들의 침략적 정책들을 규탄하여 3월 29일 당회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 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첫 수산탄시험과 인공 지위위성발사 등 수시로 반공 화국살상행위를 더욱 로발화하고 있다.

문제는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 전쟁성탄들과 별책이 전개되고 《리콜》, 《독수리 16》합동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적인 전 쟁행동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 서 자그마한 도발행위도 커다란 군사적충돌로, 세계대전으로 확 대될수 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판권적으로 범어 지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 연습의 위험성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분별없는 대결 당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무모한 대미추종이 화를 불러올수 있다

최근 미제의 침략적행동에 전승한 일본반 동들의 부신소리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최신에스텔스전투기 《F-35》가 다음해부터 일본의 야마구치현 이와구치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이 날로 로발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 반동들이 자국에 최신에스텔스전투기 를 배치하는것은 매우 이상치 않다.

군사전문가들은 그 어느 전투기보다 지상타격능력이 강하다고 하는 《F-35》를 일본에 배치하는 의도가 명백히 조선을 겨냥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F-35》스텔스전투기는 전자전능력이 다른 전투기들보다 강하며 특히 민항항공을 무력화시키는데서 《공중 선봉형》으로 활약하고있다고 한다.

조선반도와 가까운 지역인 야마구치현 이와구치군에 배치되는것은 미일침략세력 들이 유사시 제공군을 장악하고 침공적 인 공중타격을 들이대어 우리 나라를 타 고있기 위한 군사적기도를 드러낸것으로 된다. 앞으로 이곳에 배치될 미비행기 수가 무려 120여대에 달할것이라는것

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머구 이와구치군까지도 달하면 19 50년대 조선전쟁시기에 미국이 군용기 들을 배치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공 모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인민들 의 목숨을 수없이 앗아가는데 비유한 군 사기지, 전초기지이다.

조선 조선전쟁시기에 자기 나라를 미국 의 조선전력의 전초기지, 병참기지, 후방 기지로 볼때로 섬겨마친 일본반동들이 오 늘에 와서 최고의 신행전투기배치능을 맞장구를 치고있는 의도는 명백하다.

미국을 동여 업고 제침야망을 거어어 실현해버려는것이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안전 보장관념을 시행시켜 국제사회의 실각 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때에 미국의 핵 전쟁행동에 추종하고있는것이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명 전쟁범죄로 불려우 는 안전보장관념이 풀풀내 시릴단계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일본의 《집단지 자 위협》행사가 가능해지고 결과 무력사 용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자위대》의 해외활 동능력도 보다 확대되게 되었다.

군국주의적 미질듯이 집주하고있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스텔스전투기들을

자국에 배치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으 로 하여 조선반도경장상태는 더욱더 격 화되고있다. 임의의 시각에 미국과 야합 하여 조선반도에 쳐들어오는 일본반동 들의 책동은 전대로 소치보해볼수 없다.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미추종연단》의 옛것을 거어어 실현해버리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일본이 가소롭다. 미국의 저드라임이 불어 심어는 일본반동들의 21세기에 미국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것은 영 언의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거저에 저저를 특대형인민통일적책동 을 펼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리 악을 또다시 저지르려고 군국화책동에 미친듯이 일본반동들의 망동에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격분을 금치 못 하고있다. 최근 중국의 한 통신은 시형 단지에 불어선 일본의 안전보장관념을 두고 제공상지와 조병동기 없는 《군용 차》라고 강하게 추종하였다.

오늘 일본은 현대적공격무력을 가진 위협한 전쟁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느라 대 내로 로발적으로 제침책동을 일삼고있 다. 《자위대》의 무장정부는 세계군사력 강들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이다.

조선 조선전쟁시기에는 전대국의 딱지

가 붙은것으로 하여 도적교양이처럼 승 에서 미국의 침략의 걸잡이노릇을 했던 일본반동들이 지금에 와서 배역이 미 국의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침략의 길에 앞장서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 정 양지역에 20세기 전반기의 전쟁유령이 마를고있음을 실증해준다.

전대국의 오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저들이 배한것이 군사력이 약한것이었고 하면서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의의 이 지역은 또다시 위협한 만만 하다고 배쳐들고있다. 손우동행이 미국과 배움을 맞추며 들어가는 일본군 국주의자들의 제침책동의 절반이 어떤것 이였는가는 불보듯 명하다.

과거정신이 아니라 우경화에도 집주하 는 일본의 무분별한 행동을 두고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이 예리한 눈초리를 보내 고있다. 그를 반대하는 여러 나라 인민 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발전되지가 첫번째 타격 대상이다. 미군을 계속 끌어들이는것은 일본의 파멸을 조예할뿐이다.

라 명 성

가 붙은것으로 하여 도적교양이처럼 승 에서 미국의 침략의 걸잡이노릇을 했던 일본반동들이 지금에 와서 배역이 미 국의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침략의 길에 앞장서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 정 양지역에 20세기 전반기의 전쟁유령이 마를고있음을 실증해준다.

전대국의 오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저들이 배한것이 군사력이 약한것이었고 하면서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의의 이 지역은 또다시 위협한 만만 하다고 배쳐들고있다. 손우동행이 미국과 배움을 맞추며 들어가는 일본군 국주의자들의 제침책동의 절반이 어떤것 이였는가는 불보듯 명하다.

과거정신이 아니라 우경화에도 집주하 는 일본의 무분별한 행동을 두고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이 예리한 눈초리를 보내 고있다. 그를 반대하는 여러 나라 인민 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발전되지가 첫번째 타격 대상이다. 미군을 계속 끌어들이는것은 일본의 파멸을 조예할뿐이다.

라 명 성

단편 별벌 떠는 <초대국>

선제타격망식으로 넘어간 우리의 군사적대응 조치에 미국이 완전히 열연이 빠졌다. 그래서 나온것이 새로운 미핵일방위체제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나 가지고서는 본토로 넘어오는 미핵일을 효과할수 없다는것이 이미 확증되고있다. 본토의 안전이 곤란해지고 떠 들어온 미국은 실상은 참으로 메사하게 되었다.

군부의 고위인물들이 국회마당에 저마음 나서 서 늘어내는 풀은 더욱 가관이다.

공적책은 미사익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함 지할수 있는 장기타격이더의 개선책이 정형 되고있다. 풀을 좀더 들이던 성능을 개선하 고 본토를 방어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린 학 남

각은 되전하라, 《안전보장 관념》을 즉시 철폐하라》 등 의 글들이 띄어전 구호판들을 들고 당국이 여론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제정 을 제정토 변경하여 조작한 《안전보장관념》을 폐지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II 입 프란스의 전국회에서 최근 처지계선을 위한 협조부분은 군로 자들의 파면이 이해되어버렸다. 로프의 호소 에 따라 입 연 파면에는 많은 군로자 들이 참가하 였다. 그들은 더욱 명랑하 게가는 자기 들의 처지에 7 000명의 각계군 군로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야메

이마 이런 유치한 말장난으로 본토가 불미당 질을 당할까봐 불인과 공포에 떨고있는 민심을 달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미군부당국 자들의 수교가 이만저만 아니다.

우리의 막강한 군사적위력에 미국이 얼마나 덴경하고 악몽에 시달리고있으면 이런 추태가 지 무리였는가.

미국의 위악성과 비정성이 또다시 드러났다. 죄있는 눈 좀떠려 먹는다고 언저 어느 시각에 불례를 발을치 불러 전진공과하고있는 미국의 처지가 가관이었는 되었다.

미국이 악몽에서 일어 날모양도 없는것은 아니 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강경군을 끌고 소 소콜로 들어가는것이 유일한 상책이다.

린 학 남

각은 되전하라, 《안전보장 관념》을 즉시 철폐하라》 등 의 글들이 띄어전 구호판들을 들고 당국이 여론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제정 을 제정토 변경하여 조작한 《안전보장관념》을 폐지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II 입 프란스의 전국회에서 최근 처지계선을 위한 협조부분은 군로 자들의 파면이 이해되어버렸다. 로프의 호소 에 따라 입 연 파면에는 많은 군로자 들이 참가하 였다. 그들은 더욱 명랑하 게가는 자기 들의 처지에 7 000명의 각계군 군로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야메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장본인

미사일생산에 흥분
미국이 전술미사일생산에 열 을 올리고있다. 최근 야간소추에 있는 폭크스 마린군수독점회사 의 한 군수공장에서 기술미사일 생산호르몬이 가동하기 시작하 였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지체하

미사일은 이미 미군이 다른 나 라에 대한 침략전쟁과정에 사용 된적이 있는것을 알고 있다.
특상《자위대》까지 배비
일본방위성이 3월 28일 오 키나와현의 요나구치군에 특상 《자위대》기지를 설치하였다.

기지에서는 약 160명으로 편성 된 부대가 실주하며 바다와 상공 에서 활동하는 선박과 비행기들 에서 활동하는 선박과 비행기들 에서도 감시한다고 한다. 일본 의 이러한 무력배치행동은 주변나 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망동

최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 강서안지역의 라말라호수에 있는 팔레스타인위성해비촌방 송국 사무소를 제재하느라 결정 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 월과 11월에 도 헤르모스산에 3개의 팔레스타인사이드방송국 들을 제재하고 방송설비들을 압 수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스라 엘당국은 최근 요르단강서안지 역에 있는 약 5700《에이커》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아 자국의 《국가영토》로 선 포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 은 만행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부당한 정책배치

미국인들속에서 이슬람교 나라들에 대한 당국의 부당 한 정책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지고있다. 3월 28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여론조사결 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8% 가 《민주화》의 수단일 때 이 슬람교나라들의 내정에 간섭 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정책 을 반대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빈칸드에서 당국의 부당한 경제 정책을 반대하여 시위